

## 이재명 후보, 설 연휴 첫날 ‘우리의 힘을 믿어’ 나이키 광고 영상 공유, “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의 우리가 돼야” 위기 극복의 메시지 전해

○ 국민·지지층 향해 ‘역강부약’ 위한 개혁 의지 재차 강조… “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소년공 이재명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,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”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31일 SNS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 <나이키>의 ‘우리의 힘을 믿어’ 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공유하며 “대한민국은 이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반드시 하나의 우리가 되어야 한다” 고 밝혔다.

설 명절 첫날, 우리가 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‘역강부약’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.

<나이키>의 해당 광고는 인종과 성별, 장애를 넘어 하나의 우리가 되는 과정을 수많은 영상을 이어 붙인 편집으로 지난 2020년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.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.

이 후보는 “이 광고로 큰 깨달음을 얻는다” 며 “세대 갈등부터 성별 갈등, 지역 갈등까지 우리를 가르고 나누는 수많은 갈등을 넘어 하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또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인지 자문해 본다” 고 강조했다.

이 후보는 “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소년공 이재명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,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” 이라며 “지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.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기 때문” 이라고 밝혔다.

이 후보는 역강부약의 세상 실현을 위해 함께 걷는 동지들과 지지자, 국민에 감사를 표하며 분열의 시대 종식을 위한 ‘하나됨’ 을 호소했다.

이재명 후보는 “코로나19부터 저성장·양극화, 기후 위기까지, 너무나 큰 위기이기에 모두가 마음을 모으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다” 며 “그 과정이 너무도 고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.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.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” 고 호소했다.

<나이키 ‘우리의 힘을 믿어’ 광고 링크>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7BeaT2LIAQ8>

<첨부 : SNS 메시지 전문>

## SNS 메시지 전문

<우리의 힘을 믿어>

“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함께 할 때 ‘우리’는 강해지죠”

화제가 되었던 나이키 광고입니다.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의 힘도 있지만, 무엇보다 인종과 성별, 장애를 넘어 하나의 우리가 되는 과정을 수많은 영상으로 이어 붙인 놀라운 편집이 큰 울림을 남깁니다.

‘우리의 힘을 믿어’라는 60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보고, 얼마나 오랜 시간 최선의 노력으로 한 장면, 한 장면을 담아냈을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저는 이 광고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.

세대 갈등부터 성별 갈등, 지역 갈등까지 우리를 가르고 나누는 수많은 갈등을 넘어 하나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,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또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인지 자문해 봅니다.

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소년공 이재명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,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. 단 한 번도 순탄한 과정이 없었고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. 악착같이 온 힘을 다해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왔습니다.

개혁이란 늘 저항을 수반하고, 더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기 마련입니다. ‘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’ 억강부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. 약한 자를 돕는 제도를 만들 때면 늘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이 따라붙었고, 한 뼘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딪쳐야 했습니다.

지친 적이 없었다면, 흔들렸던 때가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. 저도 사람이기에 가끔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에 아내에게 “지금 멈추면 어떨까..”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.

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함께 손잡아주시는 국민, 같이 울고 웃어주시는 지지자 분들, 때로 부당한 비를 맞고 저의 부족함으로 매서운 비판에 직면해도 묵묵히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뜻 모아주시는 동지들이 곁에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을

가질 수 있습니다.

사랑하는 동지 여러분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은 이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반드시 하나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. 코로나19부터 저성장·양극화, 기후 위기까지, 너무나 큰 위기이기에 모두가 마음을 모으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.

그 과정이 너무도 고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“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함께 할 때 ‘우리’는 강해집니다.”